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제멋대로' 포항·영덕 사업자 8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적발
18차례 걸쳐 53개 제품 가격 결정
과잉경쟁 자제... 사업활동 제한

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유통음식
점에 납품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도
매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지역 소매
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
의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 영덕군 지역 소매
점에 유통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
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재 종합주류도
매업 면허 소지 사업자들의 단체다. 협

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유통
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
는 5942개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 ~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
례에 걸쳐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
을 열고 경주법주, 금북주, 롯데칠성음
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
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
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9년 월례회의
에서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
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
업자간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영업 활
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
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

업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
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
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과기
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
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시장에
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영업 활동을 부당하
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
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
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왼쪽부터)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배규호 디엔솔루션즈 수석부사장, 김성구 한화정밀기계 창원사업장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내 3개社, 2708억 투자협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규모 투자

창원특례시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
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항공방산·
정밀기계 선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한화정밀기계, 디엔솔루션즈와
총 270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5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한화에어
로스페이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 한
화정밀기계 김성구 창원사업장장, 디
엔솔루션즈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참석
해, 창원국가산단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디엔솔루션즈는 연 9% 이상의 성장
세가 예상되는 하이엔드 기종 생산 기
반 마련을 위해 1130억원을 투자해, 현
사업장 내 공장 증설 및 초정밀 5축 가
공기 등 전용 시설을 구축하고 14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자
동차, 항공, IT 등 고부가산업의 제조
기반 강화 및 고가 수입 장비의 국산화

를 통해 국내 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차세대
대전투기 'KF-21' 엔진 국산화에 따른
중장기 생산능력 확보와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까
지 591억원을 투자해 현 사업장 내 생
산시설을 증설하고 30명을 신규 고용
할 계획이다.

한화정밀기계는 SMT 생산능력 향
상과 반도체공정 장비 신사업 진출 등
반도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
해 2025년까지 987억원을 투자해 현 사
업장 부지 및 공장을 매입하고 제조동
을 증설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국가산업
단지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
년을 준비하고 있는 의미있는 시기에
창원국가산단의 선도기업인 3개사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이번 투자로 기업과 창원국
가산업단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에 대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중기부, 경북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대구·경북 지역)

충청, 호남, 동남 이어 4번째 선정
지자체 추진 의지 등서 좋은 평가
오는 6월까지 설치 후 운영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엔젤투
자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대경
권)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
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

방 광역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
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
산·경남)에 구축했다. 이번이 네 번째
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
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
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

지점(영남대학교)에 대경권 엔젤투자
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
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
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크 구
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
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광주시, 업무자동화로 디지털 행정 혁신 가속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등에 도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업무자
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
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
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
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
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과제
이다.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교
육이수 실적을 직접 등록했지만 이제
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으로 처리
토록 해 개별 등록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는 매월
부서마다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
식비 금액 계산을 자동화해 업무시간
절감과 함께 수기 계산에 따른 실수를
차단했다.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는 1년에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통지하
던 상시학습 실적을 자동화를 통해 상
시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
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개별 통지
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
단했다.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
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처리로 연간 약
3000시간 이상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화 도입 효과를 분석

해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
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행정업무 재설계로 자동화 처리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자동화 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하고 자동화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다
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입
효과가 증명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
동화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절감된 시간만큼 부가가치
가 높은 핵심 업무와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

배일련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디
지탈 전환시대,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
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
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무원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알파공' (RPA를 연구하는 공
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양수명 기자 ysn6313@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 등 4개 노선 신설

수도권 주민 이동 편의성 개선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이동 편의
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동행버스'의 노
선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행버스 노선은 기
존 6개에서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
산, 의정부 가능 등 4개를 신설해 총 10
개가 된다.

서울07번(성남시)은 아침 7시부터
오전 7시45분까지 총 4회 운행한다. 해
당 노선을 오가는 버스는 양재역에서
출발해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도착한다.

서울08번(고양시)은 아침 7시~7시

30분 사이에 3회 운행한다. 운행 경로는
고양시 화정역부터 DMC역까지이다.

서울09번(의정부시)은 새벽 6시30분
부터 오전 7시15분까지 총 4회 운행한
다.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출발해 노
원역까지 간다.

서울10번(의정부시)은 아침 6시30분
~7시15분 사이에 4회 운행한다. 운행
경로는 의정부시 기능동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까지이다.

시는 신규 노선 추가로 판교 제2테크
노밸리, 고양 화정역, 의정부 고산지구
와 가능동 인근 지역에서 서울로의 접
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대학노조 "글로벌대학, 구조조정 부추겨"

재정 확대됐지만 소수 대학에 집중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교
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긴
다고 비판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
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
재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대
학에 집중되는 글로벌대학 등의 방식

으로는 당연한 대학 위기 상황을 극복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 년간 이어져 온 입학생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운영의 위기는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
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생태와 고등교
육 비전을 고려치 않고 경제적인 논리
로 규제개혁·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
진한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주호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om